

# “목포 사립고 1학기 때도 시험문제 유출”

“소문 파다”... 학생 본보에 밝혀  
“자습실·영어문제” 공통점에  
추가수사 불가피... 교육감 사과

목포 A사립고 시험문제 유출이 이번 중  
간고사가 처음이 아니라 올 1학기 때도 있  
었다는 학생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적  
하며 최근 경찰에 출석해 “시험문제 유출  
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는 주장을 편 학  
부모·학생(광주일보 2018년 10월 16·17  
일 7면, 6면)에 이어 2번째 증언이다. 새롭  
게 나온 학생 증언 역시 이번 사건과 마찬

가지로 ‘2학년 심화반 자습실’과 ‘영어시  
험문제 유출’과 맥이 닿아있다. 17일 밤 해  
당 고교 학생 B군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올해 1학기 때도 학교에서 시험문제가 사  
전에 유출됐다는 말이 돌았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지난해까지는 이런 말이 없  
었는데 올 1학기부터 시험문제 유출과 관  
련한 소문이 교내에 돌기 시작했다”며 “그  
때도(1학기 때도) 똑같았다. 제가 듣고 아  
는 것은 ‘1학기 중간·기말고사때도 2학년  
심화반 자습실과 기숙사를 중심으로 유출  
된 영어시험문제가 돌고 있다’는 소문을 여  
러 학생이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제가 2학년 학생도 아닌데, 시  
험문제 유출과 관련도 없는 학년인 제 귀에

도 그런 말이 들어올 정도였다”며 “학생들  
사이 소문이 무성했지만 학교의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학생 증언이 추가로 나오면서 최근 2학  
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문제가 유출됐으며  
경찰에 출석해 자칭해 “시험문제 유출이 1  
학기때도 있었다. 아주 만연해 있다. 발본  
색원해달라”고 한 학부모와 그의 자녀인 2  
학년 학생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학  
기 시험문제 유출 소문에 관해 이날 광주  
일보에 증언한 학생 주장을 감안하면 시점  
(2학기가 아닌 1학기)만 다를 뿐 ‘2학년  
심화반 자습실, 영어시험문제’라는 공통점  
이 있다는 점도 시사적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때도 시

험문제 유출이 있었다는 학생·학부모 의  
혹제기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 가  
운데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1학기 시험 유출 의  
혹 관련 복수의 증언이 나온 만큼 수사를  
통해 명쾌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청  
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엄격하게 관  
리돼야 할 시험문제가 유출된데 대해 도민  
과 교육가족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남교육청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전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험지 유출 관련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 학생 “봐도 되나요”에 “그래”... 시험문제 유출, 교사의 실수인가 고의인가

비밀번호도 없이 바탕화면 저장  
경찰, 해당 교사 금명 재소환

‘교사의 실수인가, 방조인가, 고의인가.’  
목포 A사립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  
제 유출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교육청 감  
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두고 제기되는  
의문이다.  
우선 유출된 문제는 최근 처리된 ‘2학년 2  
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문제’다. 복수의 영  
어 교사에게 출제·검토된 후 총 28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문제 전체가 아니라 11문  
제가 유출됐고 이 중 주관식 3문제를 포함

10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 여기까지는 대  
체로 사실관계를 두고 이견이 없다. 문제는  
유출된 11문제를 출제하고 따로 보관하다가  
유출의 빌미를 제공한 교사의 행태다.  
해당 교사는 학교 별관 2학년 심화반 자습  
실 바로 옆 교사연구실이 본인의 사무공간이  
다. 그의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있는데 학생  
들은 오래전부터 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  
해 각종 학습자료를 출력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교사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5일께 영어시험문제(11문제)를 출제하고,  
10월 5일 실제 영어시험을 볼 때까지 무려  
20일간 그 컴퓨터에 시험문제를 계속 보관했  
다는 것이다. 외장하드에 저장된 것도 아니

고,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고, 비밀번호도 설  
정하지 않았다는 게 전남교육청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교사에게 시험지 관리를  
잘해달라는 요청도 했다는 말도 나왔다.  
시험문제 유출은 지금껏 확인된 것만 2  
차례. 10월 2일 오후 4시10분께 학생 B군이  
출력했고 이에 앞서 9월 15~17일께 학  
생 C군이 교사 컴퓨터에서 자기 이메일로  
시험문제를 전송했다고 경찰과 학교에 자  
백했다. 경찰은 “학생 C군이 그렇게 자백  
했다는 것이지, 최초 유출자가 학생 C군이  
라는 것은 수사가 마무리 되기전에는 단정  
짓기 힘들다”고 했다.  
교육 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이유

는 해당 교사가 학생 C군이 교사 컴퓨터에  
서 이메일로 유출할 당시(9월 15~17일)  
“선생님 이 시험문제 저도 봐도 되나요?”라  
고 묻자 “그래”라고 동의(?)했다는 교육당  
국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전남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재차 물어  
보니, ‘그러라고 동의는 했으나, 그게(학생  
이 봐도 되느냐고 묻는 문제)가 시험문제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는 게 맞다”는 것이다.  
경찰 역시 이메일로 시험문제를 유출한  
학생 조사과정에서 “선생님이 보라고해서  
봤고 이메일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 조  
만간 해당 교사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카카오 카풀 안된다”...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카카오택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택시운행 중단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광 주에서는 개인택시 기사와 조합관계자 120명, 법인택시 기사 200여명이 이날 오전 전세버스 등을 타고 서울 광화문 집회참석을 위해 상경했다. 전남에서는 개인택시 기사 120 명, 법인택시 기사와 법인 대표 등 80명이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1	달뜨기	15:11
해질	17:53	달짐	01:09

주말까지 일교차 커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어요.

광주	맑음	8/20	보성	맑음	4/19
목포	맑음	10/19	순천	맑음	9/20
여수	맑음	11/19	영광	맑음	6/19
나주	맑음	5/20	진도	맑음	8/19
완도	맑음	9/20	전주	맑음	7/19
구례	맑음	5/20	군산	맑음	8/19
강진	맑음	6/20	남원	맑음	6/19
해남	맑음	5/19	흑산도	맑음	14/18
장성	맑음	6/1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면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서부	면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면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생황지수

관심	☀
보통	☀
좋음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03 15:49	09:38 22:39
여수	11:23 --:--	05:33 18:22

◇주간 날씨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	☀	☀	☀	☀	☀	☀
7/21	8/21	9/21	14/21	11/21	9/21	10/20

# 교수 캐비닛 열어보니 7000만원 돈뭉치

광주과학기술원 연구비 부적정 집행 의혹 현장감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캐비닛에서 거  
액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감사 결과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모아 현금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연구재단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재단 감사팀은 지난 8월 20~23  
일 광주과학기술원 A 교수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벌였다.  
재단은 이 교수가 연구비를 빼돌렸  
다는 투서를 받고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에서는 연  
구실 캐비닛에 5만원권으로 보관하던  
7000만원이 발견됐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  
게 지급된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 일부  
를 현금으로 회수해온 것으로 감사팀  
은 파악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연구실 공통경비  
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캐비닛에 보관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수는 하위 견적서 등을 활용해  
연구장비를 사들인 의혹도 받고 있다.  
A 교수는 연구장비를 외상으로 사  
들인 뒤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하위 견  
적서와 거래 명세서를 활용해 실제 거  
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청  
구해 외상금액을 갚은 것으로 감사팀  
은 보고 있다. 해당 장비의 가격은 1억  
원 이상으로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  
쳐야 구매할 수 있는 장비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용도 외에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재  
단은 또 A 교수 등을 형사고발 조치하  
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100년 신문 향한 정동지 **광주일보**  
창간66주년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